

도약을 위해 정진하는 한 해를 준비하며

지난 해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남겨 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협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역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갔던 한 해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협회 창립 15주년을 보내면서 앞으로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던 한 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에이즈 치료제의 개발은 비록 완치를 이루지는 못 할지라도 에이즈를 만성적인 질환으로 변모시키고, 나아가서 감염인의 전염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전 세계적인 증가속도를 둔화시키는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약화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지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 실정에서 이러한 만심과 해이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예기치 않은 증가를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간 증가가 주춤했던 선진국에서 감염인 수가 다시 증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어 많은 관심과 주의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협회는 더욱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감염인의 삶이 연장됨에 따라 그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치료비 지원, 취업 알선, 자활 지원, 복지후생 지원, 편견과 차별 해소, 그리고 권익 보호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그로 인해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 임직원 모두는 열심히 노력하여 그간의 귀중한 교훈과 경험을 되새겨 협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감염인들과 함께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해 지회 순방을 하면서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도 묵묵히 책임과 사명을 다해 일하시는 임직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밝은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협회의 앞으로의 발전과 도약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2년 올 한 해에 여러분 모두가 하시는 일과 건강에 성공과 행운이 깃들시기를 바라며, 모든 일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